**우리 복지관은 지금** 6.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환경 교육 통해 협동과 소통 힘 길러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 참가 학생들이 협동 컵 옮기기 게임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은 2023년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사업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은 환경 교육을 매개로 또래 관계를 회복하고, 협동과 소통의 힘을 기르는 집단 활동을 통해 아동 간 친밀감과 응집력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협력 풍선 놀이, 환경 보드게임, 분리배출 게임, 새활용(업사이클링) 활동 등 체험형·참여형 활동으로 친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양말목을 활용한 새활용 공예, 환경 빙고, 협동 컵 옮기기 게임 등은 학생들의 높은 몰입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서 "함께 하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플로깅을 해 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효과는 사전·사후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아동 간 친밀감 및 응집력은 모든 학교에서 상승했고, 소통 능력 영역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환경문제 관심도는 평균 1점 이상 상승, 일부 학교는 2점 이상 향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 평균 4.8점 이상(5.0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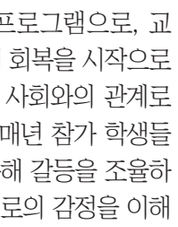
특히 담임교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환경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문항이 두 학기 모두 5.0점 만점을 기록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이후 교실 일상 속에서도 환경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또래 간 의사소통이 부드러워졌다고 평가했다. 또 초기 목표보다 많은 학급이 참여했고, 프로그램은 2학기까지 연장 운영됐다.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자료 준비 수준에 대해 평균 4.7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남겼다.

'친환경 친구들, 친·친'은 교권 약화로 나타나는 학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또래 관계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로 활동을 확장했다. 매년 참가 학생들은 협동 활동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는 경험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완수하는 성취감을 나눴고, 일부 학급에서는 초기 산만했던 분위기가 점차 안정되며 자율적 협력 구조로 전환되는 변화도 관찰되면서 복지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환경'이라는 주제를 유지하되, 아동 간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와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확대해, 아동이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을 배우는 교실 안 작은 실천이 친구 관계를 바꾸고 학급 문화를 바꾸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친환경 친구들, 친·친' 사업은 오늘도 그 가능성을 증명하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송진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대만불교 포교일기** ③ 화합과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세상

# 대중 고통 품을 때 진정한 귀의처 돼

우리 사회는 최근 여러 업계의 가격 담합 소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맞잡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밥상 물가로 전이된다. 고물가 시대에 시름하는 대중을 보며, 문득 '종교는 민생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된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을 과거 불광산사에서 겪었던 경험담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사건의 시작은 불광산사가 위치한 대만 가오슝 대수구(大樹區) 구청장의 간곡한 호소였다. 과일 리치(Litchi)의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수확기만 되면 중간 상인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으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거둔 결실을 헐값에 넘기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정을 들은 성운 큰스님(星雲大師)께서는 상황 파악을 지시하셨고, 그 임무는 당시 도감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던 필자에게 떨어졌다.

경매 시장의 생리를 잘 모르던 필자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 경매장으로 달려가 직접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로 턱없이 낮은 가격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필자는 당일 수백 근의 리치를 직접 구입하며 경매가를 높여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도왔다. 하지만 수행자가 매일 경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담합의 벽을 허물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를 보고받은 큰스님께서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셨다. "도량을 농민들에게 내어 주고 우리가 직접 직거래의 장을 열자." 이것이 바로 '불광산 국제 과일축제'의 시작이었다.

**불광산, 대만 리치 가격 담합에 농민 돕고**
**폐해 감시·공정한 플랫폼 역할 톡톡히 해**
**'국제 과일축제', 화합·상생의 이정표 되길**

불광산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대만 전역의 불광산 분별원(分別院)들이 현대적인 물류 체인점처럼 일제히 가동됐다. 사찰이 직접 농민들의 리치를 수매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당시 불광산의 유통량은 시장 전체의 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만큼 압도적이었다. 탐욕으로 뭉쳤던 유통업자들은 결국 큰스님을 찾아와 참회하며 농민들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자비의 원력이 이기적인 탐욕을 녹여 낸 순간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결실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자신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준 불광산에 깊은 감동을 느낀 농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제까지 시장 바닥에서 시름하며 유통업자들과 싸우던 농민들이 이제는 불광산의 독실한 신도와 봉사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비를 다시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도량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진정한 보살로 거듭났다. 종교가 대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대중 역시 종교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귀의처로 삼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도 이러한 '실천적 자비'일지도 모르겠다. 종교가 법당 안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나 담합의 폐해를 감시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공정한 플랫폼이 돼 줬듯, 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종교의 존재 이유를 체감한다.

과거 '불광산 국제 과일축제'가 보여 준 모델이 오늘날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도 희망의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 부처님의 지혜가 시장의 탐욕을 정화하고, 우리의 일상이 화합과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⑩ 내 할머니의 새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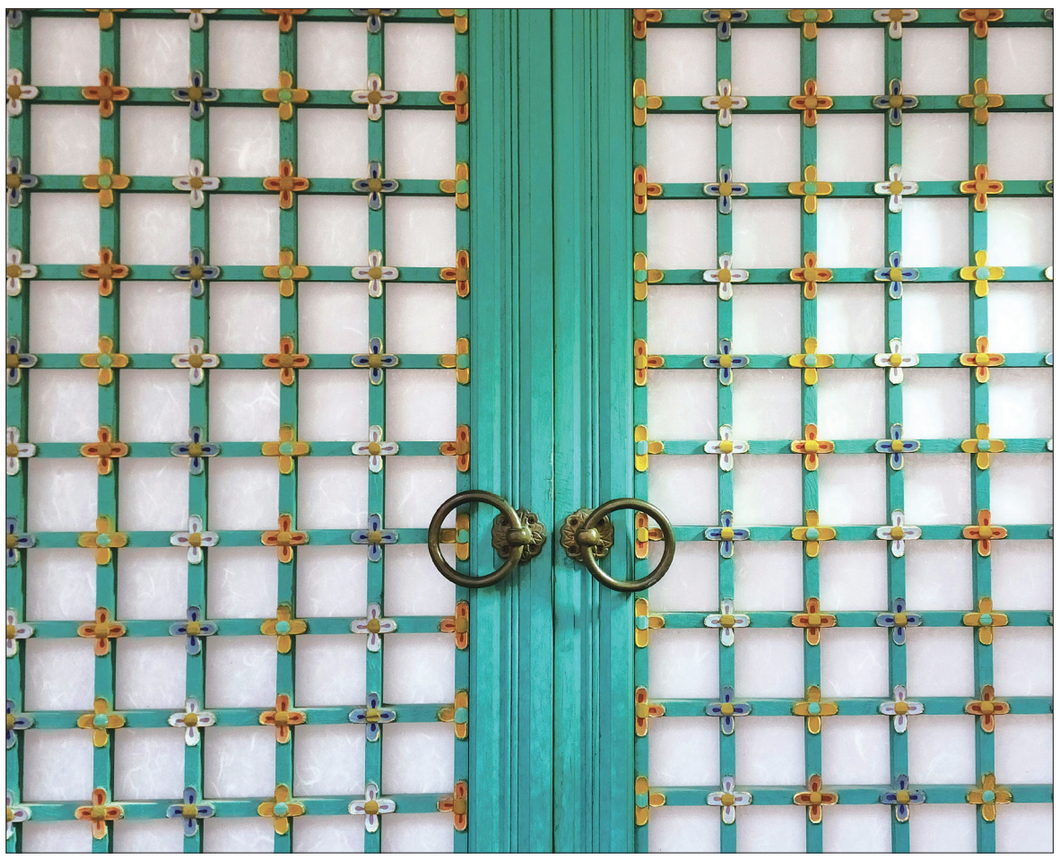
매화꽃 피는 새봄은 입학식이 열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나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을 했고 언제나 당당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았는데, 이맘때면 꼭 하는 일이 있었다. 동네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가 있는 집에 얼마간 돈을 담아 봉투를 전하는 일이었다. 봉투 겉에는 집안 형편에 따라 '교복 값', '입학금' '학용품 값'이라고 썼다. 그런데 할머니는 글을 몰랐다. 내가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고부터 봉투 글씨는 내 몫이었고, 그것을 전하는 일은 나에게 즐거운 심부름이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키는 아마도 그때 다 자라지 않았을까 싶다.

신흥사에 갔을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잠깐 맨손을 꺼내도 손끝이 아렸다. 그렇게 절을 둘러보다 보제루 문살에 핀 매화꽃을 만났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다.

어릴 적 나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손녀인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나와 사촌인 손자들에 비해 반의반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당당했던 분이 '남존여비'라는 시대의 압력에는 왜 그렇게 고분고분했을까. 그래도 나는 할머니에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 매화꽃이 할머니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손영자 작가**



신흥사 보제루.

